

- 주요 뉴스: 9월 FOMC 의사록, 제약적 통화정책 의지 재확인 일부는 미세조정 필요 주장
 - 미국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시사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을 위한 기준은 매우 높은 편
 - 영란은행, 예정대로 긴급 국채매입 중단. 일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제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영향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보합[+0.04%],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매업 및 은행주 약세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9월 생산자물가 결과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1%, 0.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5일 만에 하락 전환
독일은 영국 국채시장 약세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424.9원, 0.0원) 보합,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10/12일	10/11일	전일대비			10/12일	10/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577.0	3,588.8	-0.33%	국채금리 10y	미국	3.90%	3.95%	-5bp
	유럽	385.88	387.95	-0.53%		독일	2.31%	2.30%	2bp
	중국	3,025.5	2,979.8	1.53%		영국	4.44%	4.44%	-1bp
	일본	26,397	26,401	-0.02%	CDS 5y	한국	61bp	62bp	-1bp
	한국	2,202.5	2,192.1	0.47%		중국	110bp	113bp	-3bp
환율	달러지수	113.26	113.22	0.04%	위험지표	EMBI+	-	468	-
	유로화	0.9703	0.9708	-0.05%		VIX	33.57	33.63	-0.18%
	엔화	146.91	145.86	-0.71%		WTI유	87.27	89.35	-2.33%
	위안화	7.1748	7.1687	-0.09%	원자재	구리	342.5	346.2	-1.07%
	원화	1,424.9	1,435.2	0.72%		금	1,673.2	1,666.3	0.4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9월 FOMC 의사록, 제약적 통화정책 의지 재확인. 일부는 미세조정 필요 주장

-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또한 적극적 대응에 따른 비용이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비용보다 적다고 판단
- 다만 일부 위원들은 현 경제전망 등을 고려 시 심각한 역효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 아울러 과도하게 총수요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목표(2%)를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침체 유발 위험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 하지만 경기침체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용기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Independent Investor Alliance의 Chris Zaccarelli)
-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이번 의사록 공개 이후 11월 FOMC에서의 0.75%p 인상이 확실히. 그리고 12월과 내년 1월에 각각 0.50%p 및 0.25%p 인상 가능성(각각 61.4%, 58.2%)이 높은 것으로 판단. 연방기금금리 정점은 내년 2월(4.50~4.75%)에 도달하고 12월(4.25~4.50%)에 첫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생산자물가(PPI) 상승률, 예상치 상회.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 시사

- 9월 PPI의 월간 상승률은 0.4%를 나타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0.2%) 대비 올랐으며, 연간 상승률은 8.5%로 전월(8.7%) 대비 소폭 하락. 다만 이들 결과는 모두 시장 예상치(각각 0.2%, 8.4%)보다 높은 수준. 연간 상승률의 둔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공급망 차질 개선 등에 기인
- 근원 PPI 역시 월간 상승률(0.4%)은 전월(0.2%) 수준 상회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 임금, 주택가격, 운임비, 일부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둔화는 향후 인플레이션 수준이 결국 하락할 것임을 제시. 연준의 과도한 통화긴축은 삶의 질 혹은 생산성 향상 없이 가계에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JPMorgan의 David Kelly)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을 위한 기준은 매우 높은 편

- 카슈카리 총재는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통화긴축을 멈출 수 있다고 발언. 다만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증거는 많지 않다고 첨언

■ ECB 총재,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금리인상

- 라가르드 총재는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지만,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 대응이라고 강조. ECB 이사회에서 양적긴축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
- 네덜란드 중앙은행 놋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적어도 2회의 큰 폭 금리인상이 필요하나, 인상 폭이 9월(0.75%p)보다 클 필요는 없다고 언급

■ 영란은행, 예정대로 긴급 국채매입 중단. 일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제시

- 영란은행 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예정대로 이번 프로그램을 10/14일에 종료한다고 발표. 하지만 FT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만일의 경우 영란은행이 긴급 국채매입을 연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
- 휴 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에도 11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

■ 중국 7중 전회 폐막,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핵심 지위 확립을 강조

-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거론하며 시진핑 주석의 당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사상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한 것은 모든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방침. 일방적인 엔화 약세는 경제에 부정적

- 구로다 총재는 엔화 약세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일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 투기적 거래로 엔화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기업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3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만 위원 강연, 미국 9월 소비자물가, 10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영국 국채시장 불안, 채권시장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귀환을 유도 - 블룸버그 (UK Turmoil Spawns Return of Bond Vigilantes)

-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등으로 정부부채 증가 우려가 증폭되며 국채금리가 급등. 그 과정에서 연금 펀드의 취약성이 부각. 이에 영란은행은 금리인상 등 현행 통화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국채 매입을 단행
- 이러한 혼란은 국가의 부채 건전성 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채권시장 자경단의 영향력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철회로 확대되었기 때문. 이와 유사한 사태가 영국 뿐 아니라 여타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가 요구
- 채권시장 자경단의 귀환은 무책임한 재정 혹은 통화정책을 방지할 수 있지만, 성장둔화 및 금융시장 취약성이 부각된 시기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

* 채권시장 자경단: 인플레이션 혹은 통화정책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규모 국채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노동규칙 개정, 초단기 근로자들을 피고용자로 재분류 - WSJ (Biden Rule Would Add More Gig Workers to Company Payrolls)

- 노동부는 독립계약자를 피고용자로 규정하기 위한 노동규칙 변경을 예고. 이는 기존 규정을 폐기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으로 회귀하는 조치로, 규칙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쟁이 격화될 전망
- 현재 초단기 노동자로 취급되는 수백만 명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건강보험,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등 기업들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 Uber, Lyft 등 관련 기업들의 노동 제반 비용이 15~30% 증가할 것으로 판단(Wedbush Securities)

■ 중국 시진핑 주석, 경제성장보다 안보에 집중한 정책 추진이 예상 - WSJ (Security, Not Growth, Is Xi's Focus)

- 10/16일 예정된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업무보고에 주목할 필요. 시진핑 주석이 공산주의 이념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으로는 비우호적인 국제정세 등으로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지향할 가능성. 그러나 중국의 이념과 전략이 수정되지 않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지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30년대에 양국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

■ 영란은행, 국채시장 회복을 위해 4가지 조치가 필요 - Financial Times

(Four steps that the Bank of England could take to repair the gilt market)

- 첫째, 국채 공급압력 완화를 위한 단기채 위주의 국채발행. 현재 영국 국채의 평균 만기는 13.5년으로 미국 및 유로존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 둘째, 장기채의 경우 매입대상 채권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 최근 물가연동채 매입 조치가 이에 해당. 당국은 이를 통해 통화당국의 시장안정화 노력 신호를 발신
- 셋째, 양적긴축의 재설계가 요구. 대차대조표 축소는 바람직하나 현 시점에서는 단기채 매도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 넷째, 향후 금리인상 경로 결정 시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독립성을 갖고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 엔화 트레이더들, 향후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 위험에 대한 회복력이 향상 - 블룸버그

(Yen Traders Show Resilience to Risk of More Japan Intervention)

- 당국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져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가 존재. 1주 달러/엔 환율의 내재변동성은 지난 달 일본은행의 개입이 있었던 시기(당시 환율은 달러당 145.90엔)의 고점 수준보다 큰 폭 하락
- 또한 최근 엔화 가치의 연속적인 사상 최저 기록으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감소. 아울러 트레이더들은 지난 번 당국의 시장개입이 미국 단기증권 매각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향후에는 예금이나 중기국채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

■ 연준, 통화정책 영향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 중일 가능성 - WSJ

(How the Fed Might Slow Down)

■ 미국 노동자 중위 근속기간, 과거와 유사해 노동력 감소 징후 미관측 - 블룸버그

(What Great Resignation? Workers Are Staying Put)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세계은행 회의에서 글로벌 부채위기 해결 노력 요구 - Financial Times

(The world is starting to hate the Fe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